

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및 범칙금 면제 제공 예정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7.(화)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컨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제공 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여 신뢰받는 출입국·이민정책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이민자 권익보호TF	책임자	팀 장	유경남 (02-2110-4108)
		담당자	사무관	천승재 (02-2110-4151)
			주무관	석봉준 (02-2110-4107)
담당 부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책임자	과 장	안재필 (031-695-3931)
		담당자	팀 장	남기득 (031-695-3934)

